

반어문의 통사적·화용적 특징에 관한 연구

朴宰承*, 權仙娥**

차례

1. 서론
2. 반어문의 통사적인 특징
 - 1) 어휘적 요소
 - 2) 의도된 통사규칙의 파괴
 - 3) 반어문 표지의 활용
3. 화용적 기능 분석
 - 1) 양태표지로서의 기능
 - 2) 조응기능 분석
 - 3) 화용적 기능 분류
4. 결론

1. 서론

반어문(反問句)은 문자기호가 지시하는 표면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형을 가리킨다. 반어문은 고도의 수사기법인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접하는 문형이다. Barnwell(1980)¹⁾은 언어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대별하였다.

- 1) to give information(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 2) to obtain information(정보를 얻기 위해서)
- 3) to stimulate actions in other people(타인에게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 韓國外國語大學校 研修評價院 flex 責任研究員, ddtm2@hanmail.net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碩士生, xiane77@naver.com

1) 김세중(1998)재인용, 의미와 번역: 영어와 한국어 수사의문문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연구 제18호

상술한 기능을 문장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각각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으로 대응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법적 형식과 언어적 기능이 반드시 일대일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你不热吗?(너 덥지 않니?)’라는 의문문은 ‘很热(더워요)’나 ‘一点也不热(조금도 안 더워요)’라는 대답을 요구한다기 보단 ‘快点脱大衣吧 (외투를 빨리 벗어)’이거나 ‘你给我开窗户吧(창문 좀 열어줄래)’의 의미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는 ‘언표내적 의미(illocutionary force, 非语言力量)’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의 함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 중의 하나가 바로 ‘반어문(rhetorical question, 反问句)²⁾’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문장의 기능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화자의 태도나 의견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서술문의 기능과 유사성을 보인다. 刘月华(2004)³⁾에 의하면 의문문에 반문하는 어조를 추가하게 되면 반어문이 된다고 하였는데, 반어문이 비록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반어문만의 특정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 본고가 취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또한 이러한 특정한 통사구조를 통해 구현되는 화용적 기능 역시 ‘강조(加强语势)’만을 제시한 刘月华(2004)의 관점과 달리, 그 기능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 역시(이) 본고의 주요한 논의 대상임을 밝힌다. 본고는 반어문중 의문사 의문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고, 반어문의 통사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 분류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학습자들이 반어문 문형을 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상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반어문의 통사적인 특징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刘月华(2004)는 의문문에 특정한 어조를 추가하게 되면 반어문으로의 문형 변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사실 일부의 경우엔 의문사가 사용된 의문문은 통사구조의 변화 없이 담화환경이나 문맥에 따라 반어문으로의 문형 변환이 가능하다.

- (예1) a : 你怎么不能来?(오늘 왜 못 오니?)
 b: 我今天家里有点事, 请您谅解。(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그래, 이해해줘.)

- (예2) a : 我今天不能去。(오늘 못 가.)
 b : 你怎么不能来?(어떻게 못 오니?)

상기 예문에 공통적으로 출현한 ‘你怎么不能来?’는 동일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예1)에서는 ‘청자가 오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반면에 (예2)에서는 반어

2) 중국어 술어인 ‘反问句’에 대응하는 한국어 술어로는 ‘수사의문문, 반어의문문, 반어문’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반어문을 대응 술어로 채택하였음을 밝힌다.

3)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04

문으로서 ‘청자가 올 수 없음에 대한 불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⁴⁾ 상기 유형과 같이 반어문과 일반 의문문이 통사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어문형에만 쓰일 수 있는 독립적인 문형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반어문형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담화환경과 상관없이 문장 구조만으로 반어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반어문은 ‘어휘적 요소’와 ‘의도된 통사규칙의 파괴’로 대별되어질 수 있다.

1) 어휘적 요소

이 유형에 속하는 반어문은 구조에 대한 분석 없이도 문자열에 특정 어휘가 검색되게 되면 반어문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예3) a. 只不过是一次期中考试罢了, 何必太认真?
(그냥 지나가는 한 차례 중간고사일 뿐인데, 그렇게 심각할 필요 있어?)
b. 你何苦这么为难我呢? 过去的事让它过去吧。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죠? 지나간 일은 그냥 물어듭시다.)

- (예4) a. 哪儿的话呢, 还差得远呢。(필요, 아직 멀었는걸요.)
b. 哪儿啊。(필요.)

(예3)은 ‘何X’유형의 어휘가 쓰인 경우로, ‘何必, 何不, 何苦, 何况, 何须’ 등의 의문사가 쓰인 경우는 반어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예4)는 이미 관형어와 같이 ‘단어화’된 경우로 단독으로 반어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듯 어휘를 기준으로 문형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제는 중국어 교육에서 뿐 아니라, 기계번역에서 통사규칙을 설정함에도 활용될 수 있다.

2) 의도된 통사규칙의 파괴⁵⁾

4) 두 예문 모두 의문사에 음성적인 강세가 놓이게 되는데 (예1)의 경우는 담화에서 응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화자의 의도인 반면 (예2)의 경우엔 상대의 의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5) 문고에서 사용한 ‘의도된 통사규칙 파괴’는 수사학에서 사용하는 술어로는 ‘액어법(拈连发, zeugma)’으로 쓰인다. 이는 문장에서 술어로 쓰이는 동사와 형용사에 언어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명사를 억지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땀구의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예1) 母亲为儿缝军衣, 情意缝在儿心理。(어머니는 아들의 군복을 꿰매면서 사랑을 아들의 마음속에 꿰매 넣었다.)

(예2) 我们肩上扛着中华民族的尊严。(우리의 어깨에는 중화민족의 자긍심을 짊어지고 있다.)

상기 (예1)의 경우에 동사‘缝’은 명사목적어인 ‘军衣’와는 의미상 언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주어로 쓰인 명사‘情意’와는 의미상 언어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예2)의 경우 동사‘扛’은 짊어질 수 있는 물체와 언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언어상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추상 명사인 ‘尊严’를 의미상 지배하고 있다. (예1)이 땀구를 사용한 예라면 (예2)가 땀구 형식을 사용하지 않은 액어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어문을 ‘수사의문문’이라고도 지칭하는 이유는 바로 반어문이 가지는 ‘수사법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어문이 가지고 있는 수사법적인 기능은 화자가 일반적인 서술문을 사용하여 의사 표현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도나 심중을 훨씬 더 강렬한 방법으로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어문이 수사법적인 기교이기에 통사적 제한에서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으며, 화자에 의해 의도되고 계획된 통사적인 파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사적 파괴는 ‘비 전형적 언어 관계(超常搭配)’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 (예5) a. 你今天太漂亮。(너 오늘 너무 아름다워.)
 b. 我今天高兴死了。(난 오늘 기뻐서 죽겠어.)

상기 예문에 쓰인 부사‘太’와 정도보어‘死了’ 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와 공기를 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한국어의 ‘너무’와 ‘~죽겠다’역시 동일한 언어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적 제약성을 파괴하는 표현은 수사학적으로 좀 더 강렬한 의사 전달 기능을 부여받는다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어문에서도 의도적으로 통사적인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예6) a. 你急什么?(뭐가 그렇게 바빠?)
 b. 你紧张什么?(뭘 긴장해?)

- (예7) a. 老往我这儿跑什么?(항상 뭐하게 나한테 오는 거야?)
 b. 孩子, 哭什么?(애야, 뭘 우니?)

상기 (예6)과 (예7)의 경우는 각각 문장의 술어가 형용사와 자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문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의도적인 통사 파괴를 통해서 반어문으로 문형이 변환되게 된다. 이러한 의도적인 구조 파괴의 효과는 반어문이 나타내는 문장 의미가 문자열 내 기호의미의 총합과 동일하지 않은 ‘언표내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반어문은 서술문이나 의문문과 같이 직접화행이 아닌 화자의 내재된 발화의도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는 간접화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반어문 표지의 활용

‘반어문 표지’는 특정한 어휘가 문장 내 출현함으로써 문장을 반어문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표지가 생략되게 되면 문장 자체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

지거나 반어문의 문형의미가 불명확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예8) a. 这有什么难过? (그게 뭐가 괴롭니?)
b. 这有什么重要? (그게 뭐가 중요해?)

- (예9) a. 跟我横着来是怎么着? (나랑 한 번 해보겠다는 거야?)
b. 你怎么老不来啊? 我们这儿门坎儿高是怎么着?
(왜 항상 안 오는데? 우리 문턱이 높다는 거야, 뭐야?)

- (예10) a. 看什么看?(보긴 뭘 봐?)
b. 笑什么笑!(웃긴 뭘 웃어?)

- (예11) a. 哪儿有时间去看电影呢?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영화 보러 가겠니?)
b. 哪敢跟老板提个意见呢? (내가 어찌 감히 사장님한테 불만을 말할 수 있겠니?)

- (예12) a. 你什么时候来的? (너 언제 왔니?)
b. 你什么时候来了? (네가 오긴 언제 왔니?)

(예8)에서 동사‘有’와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동목 구조로 문장 내 공기할 수 없는 결합이지만 ‘什么’가 삽입됨으로 임시적으로 공기가 허용된 경우이다. (예9)의 경우는 ‘是怎么着?’의 경우와 같이 계사인 ‘是’와 연이어 사용될 경우에만 반어문이 되며, 만약 ‘你看这样怎么着?(네가 보기에 이럼 어때?)’와 같이 단독으로 문장 술어로 쓰이게 되면 ‘상대의 의견을 묻는 의문사’가 된다. (예10)의 경우에 만약 ‘什么’좌측에 쓰인 동사나 형용사 하나만 사용된 경우라면 반어문과 의문문이 담화환경에 따라 문형이 선택되지만 예문과 같이 동사나 형용사가 복제되어 사용된 경우엔 반어문으로 판단된다.⁶⁾ (예11)의 경우엔 ‘哪儿有’와 ‘哪儿敢’등 ‘哪X’형식의 반어문 표지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12)에 대한 분석은 刘月华 (2004)에서 상세히 소개된 바 있는 데, ‘怎么, 在哪儿, 什么时候’ 등과 같이 ‘방법, 장소, 시간’ 등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쓰인 문장에 문장 종결어미 ‘的’가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의문사 의문문으로, ‘了’를 사용하게 되면 반어문으로 사용된다고 밝혀져 있다. ‘了’가 쓰인 반어문의 의미는 ‘질책이나 예상 밖의 일’이라는 뉘앙스를 청자에게 제공하게 된다.⁷⁾

6) (예1) 你看什么? 不许看!(뭘 봐? 보지마!)

(예2) a: 你看什么?(뭘 보니?)

b: 我看电视。(텔레비전 봐)

‘你看什么?’는 출현한 담화환경에 따라 (예1)과 같이 반어문으로도, (예2)와 같이 의문문으로도 쓰일 수 있는 구조이다.

7) 예문12의 b는 청자가 오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자를 질책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이다. 반면에 ‘你怎么来了?’의 경우엔 특정 장소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왔을 경우에 쓰인다.

3. 화용적 기능 분석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어문은 화자의 특정한 발화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된 통사규칙의 파괴’를 사용한 ‘액어법(拈连发, zeugma)’의 일종이다. 이는 문장 전체의 의미가 문장에 쓰인 문자기호의 의미의 총합과 달라지는 ‘간접화행’에 속하기 때문에 반어문형의 분석에서 의미층위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분석이 무의미한 반면에 이러한 액어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화용적 기능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다. 반어문의 화용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강조의미’라는 다소 모호한 술어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석되어왔으나 이는 반어문이 사용될 수 있는 담화환경을 확정하는 기제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본고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학습자들의 보다 정확한 반어문 활용을 위해 반어문의 화용적 기능을 아래와 같이 대별하고,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1) 양태표지로서의 기능

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의 형식을 띄지만 기능상으로는 진술을 나타내는 반어문은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间接言语行为)⁸⁾’이나 ‘언표내적 의미(illocutionary force, 非语言力量)’이라고 할 수 있다. 반어문에서 사용되는 의문사는 어휘적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고 양태표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의문사가 사용된 반어문에서 음의 강세는 의문사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문장의 초점이 바로 의문사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파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의문사는 응답자에게 해당 정보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사용되는 데에 반해 반어문에 사용되는 의문사는 화자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강하게 피력할 의도로 사용되는 ‘양태(modality, 情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어문에 사용된 의문사를 ‘양태표지(modality markedness, 情态标记)’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의문사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13) a. 怎么这么大呀? - a'. 这么大呀!

(a. 뭐가 이렇게 커요? - a' 이렇게 커!)

b. 你怎么还不睡觉? - b'. 你还不睡觉?

(b. 왜 아직 안자니? - b'. 너 아직 안자니?)

반어문 표현으로 ‘예상 밖의 일에 대한 화자의 놀람’이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8)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间接言语行为)은 문장에 쓰인 단어와 구의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담화 환경이나 화자의 의도 등에 의해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문장내 단어와 구의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와 일치하는 ‘직접화행’에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기 예문에서 ‘怎么’라는 의문사가 생략되어도 문장 성립과 기본적인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怎么’라는 의문사가 사용되게 되면 예문a의 경우엔 본래 속성에서 벗어난 사물에 대한 화자의 못 마땅함이 드러나게 되고, 예문b의 경우엔 화자가 기대했던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게 되는 의미가 부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장 내에서 내용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의 양태표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 발화에 특정 성분을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예14) A : 跟你所说的那样, 他不是个什么东西啊!

(네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은 놈이더라!)

B : 你看, 我以前怎么跟你说的!

(봐봐,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어떻게 말하던!)

상기 예문에서는 선행발화라고 할 수 있는 A에 대한 응대인 B에서는 ‘他不是个什么东西’이라는 전에 했던 말을 ‘怎么’라는 의문사가 대응하고 있다. 의문사‘怎么’가 사용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전에 했던 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 의문사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대응어로 사용되었다는 것 역시 어휘 자체의 내용에서 벗어나 화자의 발화의도를 드러나게 하는 표지로 문장 내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동일한 선행발화에 대한 응대에 의문사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15) A: 你去过哪儿了吗?(너 어디 갔다 왔니?)

B : 哪儿有时间去啊! (무슨 시간이 나서?)

B': 有什么可去的! (갈만한데가 어디있니?)

상기 예문은 서로 다른 의문사의 사용을 통해 화자가 부정하고자하는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B의 경우엔 화자가 갈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哪儿(有~)’이라는 구문을 사용한 반면 B'의 경우엔 가볼만한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有)什么~’라는 구문을 사용하였다. 초점이 달라지긴 하지만 B와 B'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의미는 가부를 묻는 질문인 A에 대해 ‘没去过’ 라는 동일한 부정의 화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경우에서도 문장에 사용된 의문사는 화자의 발화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태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조응기능 분석

앞 서 언급한 바대로 일반적인 의문문에 사용된 의문사는 화자가 응답자에게 요구하는 미지의 정보인 반면 반어문에 사용된 의문사는 양대표지로서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반어문에 사용된 의문사의 ‘조응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응(anaphora)현상’은 선행사를 조응하는 특정한 조응사가 문맥 내 출현했는지 여부에 따라 ‘대형태 조응’과 ‘영 조응’으로 대별된다.⁹⁾ 일반적인 의문문에 출현한 의문사는 이러한 조응사로서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16) A : 谁说要跟我结婚的? (누가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B : 就是他说的。(바로 그 사람이 그랬어.)

하지만 만약 상기 예문과 같이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래 예문과 같이 화자 한 명에 의해서 발화된다면 의문사는 조응사로서의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예17) 谁说要跟我结婚的? 就是阿里说的。(누가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지 알아? 바로 알리아.)

상기 문장에서 ‘谁’는 후치하는 ‘阿里’와 ‘역조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화자에 의해 질문과 대답이 모두 발화되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의문사는 ‘조응사’로서의 기능을 임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반어문의 경우에도 (예15)와 동일한 환경에서는 조응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예18) 谁说的? 就是阿里说的。(누가 말 했다고? 바로 알 리가 그랬어)

(예17)과 (예18)과 같이 한 화자에 의해서 질문과 응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의문문과 반어문 모두 청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수사적 메아리 질문’으로서 상대의 질문을 반복하여 화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려는 발화 의도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두 예문에 사용된 의문사가 동일한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예16)과 같은 문답 환경에서 사용된 반어문은 일반 의문사 의문문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응관계를 밝혀낼 수 없다.

9) ‘대형태 조응’은 재귀 대명사, 대명사, 대동사 등의 성분이 조응사가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철이는 게임에서 지면 화를 낸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문장에서 대명사‘그’가 ‘철이’를 조응하고 있다. 반면에 ‘영 조응’은 조응사가 문장 내 출현하지 않고 함축되었지만 청자나 독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철이는 게임에 지면 \emptyset 화를 낸다’에서 \emptyset 자리엔 특정한 조응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청자나 독자는 화를 내는 주체가 ‘철이’임을 알 수 있다.

(예19) A : 你不是说要跟我结婚吗? (네가 나하고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니?)

B : 谁说的? (누가 그래?)

상기 예문의 경우엔 ‘谁’는 (예16)에서처럼 의문사가 조응하는 선행사나 후행사 성분을 문맥에서 찾을 수 없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사‘谁’는 질문자가 제시한 ‘你’(응답자 입장에서의 ‘我’)를 직접적으로 지칭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谁’는 ‘我没有’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선행사와 조응사의 관계를 일대일 대칭의 관계로만 ‘조응관계’의 범위를 한정시킨다면 상기 예문에서는 역시 조응 관계를 발견할 수 없겠지만, 만약 조응 관계를 의미적 대응 관계까지 확장시킨다면 의문사‘谁’는 선행사가 ‘인칭대명사+ 没有/不’라고 할 수 있게 된다.¹⁰⁾ 이러한 반어문에 사용된 의문사의 조응 관계는 특정한 문맥에서 임시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영조응(zero anaphoric, 零照应)’의 범주에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어문에 사용된 의문사의 또 다른 조응 기능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영조응’과 구별되는 ‘전칭 양화적(Universal Quantifier, 周边性) 표현’을 들 수 있다. ‘전칭 양화적’이라함은 화역 안의 개체 전체를 빠짐없이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倪兰(2003)은 ‘谁’가 사용된 반어문에서 의문사‘谁’는 아래와 같은 통사적 환경 내에서 전칭양화사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예20) i. 谁VP?表示“没人VP”(누가 VP했니? VP한 사람이 없다)

ii. 谁不/没VP?表示“没人不VP”(누가 VP안 했니?VP안 한 사람이 없다)

iii. VP谁? 表示“对任何人都没/没VP”(누구를 VP했니?어떤 사람에게도 VP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예문의 경우엔 적용이 될 수 없다.

(예21) A : 话别这么说, 我们是朋友嘛!(말 그렇게 하지 마, 우린 친구잖아!)

B : 谁是你的朋友?(누가 네 친구야?)

(예22) a : 你这个不讲信用的东西!(이 신용 없는 녀석!)

b : 你骂谁呀?(너 누굴 욕하는 거야?)

(예21)과 (예22)는 각각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통사구조이다. 하지만 (예21)에서 ‘谁’는 전칭양화적 표현이 아닌 ‘我不是’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22)에서도 ‘谁’는 화자 자신을 ‘영조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질문자가 응답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응답자의 특정한 견해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려

10) 倪兰(2003)은 반어문에 쓰인 의문사가 ‘영 조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한 바 있지만 그의 논문에는 이러한 양태표지로서의 의문사가 나타내는 조응 기능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나 분류가 결여되어 있다.

고 하는 문맥에서는 의문사가 ‘전칭 양화적 표현’이 아닌 ‘영조응’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욱 설득력있는 기술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반어문의 의문사는 문맥에 따라 ‘조응사’의 기능을 획득하는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倪兰(2003)이 제시한 조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맥에 관계없이 ‘전칭 양화표현’을 가지게 되는 문맥적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닌 경우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영조응’으로 사용된 반어문 의문사는 담화상황에서 항상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에 응답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포함되고 질문의 중점이 응답자로 제한되었을 경우에만 반어문의 의문사는 비로소 ‘영조응’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상황이 아닌 경우에 쓰인 반어문의 의문사는 ‘전칭양화표현’이 된다.

- (예23) a. 这东西谁买? (이런 물건 누가 사겠어?)
 b. 谁说我没有朋友? (내가 친구가 없다고 누가 그래?)

상기 예문에서 의문사‘谁’는 질문자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谁’는 ‘전칭양화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 谁不/没VP일 경우

이 조건은倪兰(2003)의 두 번째 조건으로 동사구 앞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는 문맥에 상관없이 의문사를 ‘전칭 양화 표현’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예24) A : 你也算是个朋友吗? (너도 친구라 할 수 있니?)
 B : 谁不是你的朋友? 我们全班同学都是你的朋友。
 (누가 네 친구가 아니야? 우리 반 전체가 다 네 친구야)

(예21)과 같이 ‘谁是你的朋友?’의 경우엔 ‘谁’가 ‘영조응’관계를 형성하는 조응사로 사용되었지만 상기 예문과 같이 부정사가 문장에 사용된 경우엔 담화 환경에 관계없이 ‘전칭 양화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경험상‘过’가 사용된 경우

경험상‘过’가 쓰인 경우에도 반어문의 의문사는 ‘전칭 양화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예25) a. 这样的要求谁提出过呢?(그런 요구를 누가 한 적이 있나요?)

b. 我跟谁发过火的?(내가 누구에게라도 화내본 적이 있나요?)

(예26) a. 有谁没病过?(안 아파 본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b. 我坑过 谁呢?(내가 누구를 속여본 적이 있나요?)

(4) 조동사와 공기하는 경우

문장에 ‘바람, 요구, 능력’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출현한 경우에 문장에 쓰인 의문사는 ‘전칭양화’적인 용법으로 판단된다.

(예27) 这种女人谁 愿意娶?(그런 여자를 누가 아내로 맞는데?)

(예28) 谁 能不去呢?(누가 안 갈 수 있겠어?)

문장에 ‘바람, 요구, 능력’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쓰이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쓰인 경우에도 의문사는 ‘전칭 양화 표현’으로 판단되어진다.

(예29) a. 这东西谁 喜欢呢?(그런 물건을 누가 좋아한데?)

b. 谁 稀罕呢?(누가 거들떠나 보겠어?)

(5) 사역동사가 사용된 겹어문

겹어동사인 ‘让, 叫, 使, 教’등이 사용된 경우에도 문장 내 의문사는 ‘전칭 양화 표현’으로 판단되어진다.

(예30) a. 谁 让我们吃上这么贵的饭菜?(누가 우리더러 이렇게 비싼 요리를 먹으래?)

b. 谁 叫我们是好朋友?(누가 우리더러 친구 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상술한 조건들은 倪兰(2003)의 조건에 비해 반어문에 쓰인 의문사의 ‘전칭양화 표현’기능에 대한 판단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칭 양화 표현’으로 사용되기 위한 문맥적 제한 조건에 관해 倪兰은 ‘谁’의 문장 내 출현 위치와 부정사 출현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은 데 반해 본고는 문장 내 기타 공기 성분들과 더불어 담화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보다 설득력 있는 새로운 문맥적 제한조건을 도출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3) 화용적 기능 분류

반어문은 선행발화나 담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어문은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형태나 의미론적에 있어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화용적인 쓰임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呂叔湘(1942), 刘月华(1981) 등은 긍정의 형식으로 부정의 의미를, 부정의 형식으로 긍정의 의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邵敬敏(1996)은 반어문의 화용적인 기능을 6가지로 대별하여 기술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당혹감(困惑义) (2) 해명, 변명의미(申辩义) (3) 책망하는 의미(责怪义) (4) 반박하는 의미(反驳义) (5) 재촉하는 의미(催促义) (6) 환기하는 의미(提醒义)

하지만 그의 분류 기준을 근거하여서는 아래 예문에 제시된 반어문의 화용적 기능을 설명해낼 수 없다.

- (예31) a. 这种机会什么时候能再来啊?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b. 你何必这么客气?
(뭐 하러 그렇게 예의를 차리세요?)
c. 老太太, 你怎么在这儿坐着, 不进去呢?
(할머니, 안 들어가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상기 예문a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예문b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반어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문c의 경우에 邵敬敏(1996)은 이를 ‘재촉하는 의미(催促义)’로 분류하였는데,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선 ‘환기하는 의미(提醒义)’로도 볼 수 있다. 그가 제시한 분류 기준은 다소 고전적 범주이론을 기반으로 한 품사분류처럼 경계간의 모호함이나 화용적 기능의 중복 등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어문의 경우에 동일한 문장이 담화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화용적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화용적 기능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고 보여진다.

상기 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邵敬敏(1996)의 분류 기준은 반어문형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석해낼 수 없음이 드러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반어문 전반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에 각 유형에 따른 하위분류를 하고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1) 화자의 의도나 예상과 어긋나는 경우

반어문이 언표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주된 화용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나 감정을 좀 더 강하게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다. 반어문은 의문문과 달리 청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의문문으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 화자의 불만이나 곤란함, 당혹감을 전달하려는 데에 발화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반어문은 객관적인 의견 전달보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강하게 드러내려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화자의 의도와 어긋나거나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을 나타낸다. 담화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의 행위나 말에 대해 화자의 불만, 분노, 질책, 훈계, 권고, 아쉬움 등의 감정을 반어문을 통해 나타내게 된다.

- (예32) a. 什么? 你怎么敢拆开了? (뭐? 네가 어떻게 감히 뜯어버릴 수 있니?)
b. 他妈的! 你们想想, 你们哪一个对得起我?
(염병할! 생각 좀 해 봐, 너희들 중 누가 나한테 안 미안하니?)
c. 谁叫你送钱来了? (누가 너한테 돈 가져오랬어?)
d. 太太, 怎么您下楼来? 我正要把茶送上去呢!
(부인, 왜 내려오셨어요? 제가 지금 차가지고 올라가려 했는데요!)

상기 예문 a, b, c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강한 불만이 드러난 반면에 예문d는 상대적으로 청자가 화자의 의도와 어긋난 행동을 하였다는 아쉬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유형을 단순히 불만이나 질책 의미로 범주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나 견해와 어긋남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유동성있게 설정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놀라움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의 출현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 할 때 반어문을 사용하여 화자의 이러한 감정을 더욱 형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예33) a. 这不是谁呀? 你怎么会在这儿呢? (이게 누구야? 어떻게 여기에 있니?)
b. 你怎么这样狠心呢?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 있니?)
c. 奇怪, 怎么这个地方会有鸡叫?(이상하군, 어떻게 이런 곳에서 닭이 울 지?)

상기 예문a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청자와 만나게 된 반가움을 나타낸다면, b는 청자의 행동이 화자가 예측했던 반응보다 강함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예

문c는 화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출현에 대한 놀라움과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상술한 두 가지 화용적 기능은 화자의 예측이라는 전제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난 점에서 동일한 분모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倪兰(2003)은 이러한 반어문의 화용적 기능을 ‘전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你怎么敢拆开了?(어떻게 봉투를 마음대로 뜯을 수 있어?)’라는 반어문은 화자의 ‘你应该不拆开寄给我的信封(넌 나한테 온 편지를 함부로 뜯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에 대한 부정이며, 이러한 전제에 대한 부정에 대한 불만을 반어문을 통해 청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전제에 대한 부정은 ‘不比 비교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 데, 박재승(2008)은 ‘没有 비교문’과 ‘不比 비교문’을 아래와 같이 비교 설명하였다.

(예34) A : 你比他高吧?(네가 그 사람보다 크지?)

B : 我不比他高。(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건 아니예요.)

(예35) A : 你比他高吗?(네가 그 사람보다 크니?)

B : 我没有他高。(난 그 사람보다 작아요.)

(예34)의 경우는 질문자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인 ‘在我看, 你比他高。(네가 그 사람보다 큰 것 같아.)’라는 전제에 대한 부정인 반면에 (예35)는 질문자는 이러한 예측 없이 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不比 비교문’이 질문자의 ‘내 키가 그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전제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키가 같거나 비슷하거나 더 작다’라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문맥에 의해 이 중 하나가 선택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不比 비교문’의 전제에 대한 부정에 의해 야기되는 의미의 중의성이며, ‘没有 비교문’이 ‘내 키가 그 사람보다 작다’라는 단일한 명제를 전달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어문의 경우는 전제에 대한 부정을 통해 부정문이나 의문문과 달리 화자의 언표내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의견제시 및 요청

이 유형에 속한 반어문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화자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자가 화자의 말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이 유형에 속한 반어문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감정표현보다는 대화 상대에게 화자의 보다 객관화된 의견제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반박의 기능이 있다. 이는 대화 상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화자의 반박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예36) A : 太太, 你吃药吧。(부인, 약드세요.)

B : 谁说我要吃药? (내가 약먹는다고 누가 그래?)

(예37) A : 真讨厌, 到处都是人。(정말 지겹네, 사방이 사람이야.)

B : 有人又怎么样? 住在这个地方还怕人?

(사람이 있으면 또 어때? 이런 곳에 살면서 사람 있는 게 아직도 신경 쓰여?)

(예36)의 경우는 화자자신을 ‘谁’라는 의문사로 대응하여 ‘我没说(내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반박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청자가 동일한 요구를 금지해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화자자신을 의문대명사로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법은 한국어와 영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가 화자의 정보와 상반될 때에 이를 강하게 부정하려는 화자의 대화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37)의 경우는 ‘又怎么样?’을 통해서 상대방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고 반박하는 화용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청자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주위환기’와 ‘요청, 재촉’의 기능이 있다. 이것은 상대가 기억해야 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거나 상대가 그 일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다.

(예38)a. 老太太, 你怎么在这儿坐着, 不进去呢?

(할머니, 안 들어가고 왜 여기 앉아계세요?)

b. 都12点了, 你怎么还不睡? (벌써 12시인데 왜 아직까지 안자니?)

c. 如此便宜, 你还等什么呢? (이렇게 싼데, 넌 또 뭘 기다리는 거야?)

‘주위환기’와 ‘요청, 재촉’을 하나로 묶은 근거는 이 두 가지 화용적 기능이 많은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주위환기를 통해서 청자에게 어떠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청자에게 행동 변화나 사고의 변환을 요구하는 화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동의구하기의 기능이다. 이 유형에 속한 반어문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예39) a. 这种机会什么时候能再来啊?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b. 你说, 她不可怜吗? (네가 보기에 그 여자 안 불쌍하니?)

c. 你不觉得口渴吗? (목 안 마르니?)

이 유형에 속한 반어문은 모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그것을 통

해 행동, 생각의 변환을 요청하고 있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화 상대의 의견에 반박을 한다는 것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모두 화자가 청자에 대한 요구와 요청이라는 화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을 상위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 반어문 해석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3) 겸손, 예의의 표시

반어문의 기능 중 또 다른 하나는 예의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예의를 표시하는 화용적인 기능은 상대의 칭찬에 대한 겸양의 표현이나 상대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통해 상대에 대한 배려 등을 나타낸다. 대화에 있어서 이러한 예의를 갖추는 표현은 전체부정보다는 부분부정이 상용되는 경우나 ‘有点’과도 같은 부사어로서 정도나 상태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등의 표현과도 화용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예40) a. 你何必这么客气? (뭐 하러 그렇게 예의를 차리세요?)
b. 哪里哪里, 还差得远。(필요, 아직 멀었는걸요.)
c. 三千足够了, 得给你自己留点儿。- 怎能说够啊?
(3000이면 충분해, 네 것을 조금 남겨놔. - 어떻게 충분하겠어?)
d. 我看还是按原方案吧! - 我也这样看, 谁还能想出比这更好的呢?
(내가 볼 때는 원래 방안대로 하는 게 나아!
- 나도 그래, 누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낼 수 있겠어?)

위의 예문 a와 b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예문b는 관용적 표현으로 반어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문c에서 쓰이는 의문사‘怎么’를 만약에 ‘谁’로 대체하게 되면 겸손의 어감에서 반박의 어감으로 변화하게 된다. d는 ‘谁都想不到比这更好的。(누구도 이 보다 좋은 것을 생각해낼 수 없다.)’라는 명제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화자의 의도를 더욱 강하게 청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4. 결론

본고는 의문문이 사용된 반어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반어문이 내재하고 있는 전형적인 통사적인 특징을 밝히고, 화용적 기능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화용적 기능만을 언급하지 않고, 통사적인 특징을 분류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어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특정 어휘의 사용과 의도된 통사규칙의 파괴, 반어문 표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를 통해 반어문의 통사적인 특징은 반어문이 간

접화행적인 기능을 획득하기 위해 화자에 의해 설계된 의도된 담화적 구조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화용적 기능은 기존 분석이 고전적인 범주 이론에 입각한 기능 간 독립성을 강조한 데에 비해 본고에서는 기능 간 교차나 중복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공유하는 기능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귀납한 뒤에 해당 유형에 대한 하위분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법의 우월성은 맥락이나 담화상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화용적 기능을 보다 탄력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의문사를 포함하지 않는 반어문과 메아리 질문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 지속할 것이며, 본고의 접근방법이 중국어의 담화표지나 간접화행에 대한 연구에 작은 틀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Stephen C. Levinson, 이익환, 권경환 역, 『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6
- 김선희, 「특수 의문문에서의 양태 의문사에 관한 연구」, 『한글』 259, 2003
- 김세중, 「의미와 번역: 영어와 한국어 수사어문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8, 1998
- 김영희, 「종속 접속문의 조응 현상과 구조적 이중성」, 『국어학』 43, 2004
- 류현미, 『국어 의문문의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 박재승, 「不比비교문의 문형의미와 화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43, 2008
- 박종갑, 「의문문과 간접언어행위」, 『영남어문학』 9, 1982
- 박진완, 「수사의문문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고찰」, 『어문논집』 38, 1998
- 유선영, 「반어문의 의미, 화용상의 이해」, 『중국어문학논집』 39, 2006
- 이창덕, 『질문행위의 언어적 실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2
- 임동훈, 「국어 양태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12, 2003
- _____,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체계」, 『한국어의미학』 26, 2008
- 常玉钟, 「试析反问句的语用含义」, 『汉语学习』 71, 1992
- 丁声树, 『现代汉语语法讲话』, 北京, 商务印书馆, 1999
- 董付兰, 「谈反问句及其教学」, 『首都师范大学学报』 增刊, 2000
- 何震亚, 「谈反问句中的礼貌规约性」, 『苏州教育学院学报』 25, 2008
- 胡孝斌, 「反问句的话语制约因素」, 『世界汉语教学』 47, 1992
- 李捷, 「从语用的角度看汉语反问句的使用」, 『南华大学学报』 6, 2005
- 李瑾, 「特指问形式反问句的模式分析」, 『对外经济贸易大学学报』 3, 2003
- 李宇明, 「反问句的构成及其理解」, 『现代语言学』, 1990

- 刘松江, 「反问句的交际作用」, 『语言教学与研究』2, 1993
- 刘娅琼, 「试析反问句的附加义」, 『修辞学习』3, 2004
- 刘月华等,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1983
- 吕叔湘, 『中国文法要略』, 北京, 商务印书馆, 1982
- 倪兰, 「特指问反问句的语用分析及其修辞意义」, 『修辞学习』6, 2003
- 冉永平, 『语用学:现象与分析』,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6
- 邵敬敏, 『现代汉语疑问句研究』, 华东师范大学出版社, 1996
- 索振羽, 『语用学教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4
- 王强, 「也谈反问句的意义和作用」, 『人文科学』, 2007
- 肖治野, 「从"怎么"反问句看反问句教学」, 『云南师范大学学报』4, 2006
- 殷树林, 「论现代汉语反问句的语用价值」, 『求是学刊』35, 2008
- 赵雷, 「谈反问句教学」, 『语言教学与研究』3,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Syntactic and Pragmatic Features of Rhetorical Questions

Jae-seung Park, Seon-a Kw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syntactic features and pragmatic functions in rhetorical questions and to provide learners who study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with more accurate utilization guidelines in learning rhetorical question patterns. Rhetorical questions mean sentence patterns conveying the opposite meaning of what character symbols indicate. While it is a kind of question sentence, it does not ask for information but is intended to convey a speaker's attitude or opinion.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only wh-questions in rhetorical question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belief that even if rhetorical questions use question patterns they have their own syntactic structure.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ussion that the pragmatic functions of rhetorical questions can be more segmented, not limited to emphatic meaning.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syntactic features of rhetorical questions with them classified into lexical factors and intended destruction of syntactic rules. Also, various pragmatic functions in rhetorical questions are classified into function as modality markedness and anaphora and analyzed to newly classify pragmatic functions.

Key words: rhetorical questions, syntactic features, pragmatic functions, modality markedness, anaphora functions